

# RENDEZ-VOUS / DE LA MUSIQUE FESTIVAL 2022

20세기의 르네상스 Renaissance in the 20<sup>th</sup> century



**랑데뷰 드 라 무지크 페스티벌 2022**

**2022. 8. 21, 23-25 예술의전당 인준아트홀**

주최 stageone

후원 **H** 현대해상

**코스모스악기**  
COSMOS CORPORATION

## GREETINGS

### 뜨거운 태양아래 펼쳐지는 제 1회 '랑데뷰 드 라 무지크' 페스티벌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만남과 교류가 힘들었던 고립된 시간을 지나면서, 음악을 통해 어떻게 함께하고,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며 이번 페스티벌을 기획하였습니다.

연주자들 간의 긴밀한 음악적 유대와 소통이 핵심인 실내악 음악이 갖고 있는 친밀하고 특별한 '음악적 랑데뷰'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20세기의 르네상스" 라는 조금은 무겁지만 의미있는 주제로 그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관객분들에게 조금 생소한 미국 클래식 음악들이 많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역사적 대사건들과 비극이 끊이지 않던 20세기는 미국 클래식 음악의 정체성이 확립되고 현대음악이 발전하게 된 미국 음악사적으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열악한 시대적 상황과 현실적 난제가 난무하던 과거의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부흥한 음악, 나아가 예술계의 모습은 저에게 '르네상스'라는 용어의 진정한 의미, '재생', '부활'을 되새겨 보게 하였으며, 우리가 살고있는 현재를 떠오르게 했습니다. 총 4회의 공연으로 이루어진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지난 시간의 어둠과 빛을 고찰하고, 다가올 우리 사회와 문화의 미래에 "21세기의 르네상스"를 염원하고자 합니다.

*누구에게나 살아오면서 그것이 우연이든 필연이든, 크고 작은 랑데뷰; '조우'가 있을 것입니다.*

제 삶에 음악이 그렇게 찾아왔듯이, '랑데뷰 드 라 무지크' 페스티벌이 여러분의 일상에 소소한 때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듯한 환상적인 '음악적 랑데뷰'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랑데뷰 드 라 무지크' 페스티벌의 개최를 위해 물심양면 도움주신 많은 분들께 마음 속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저희 페스티벌의 행보에 많은 관심과 애정 가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8. 21

예술감독 **김혜진**

### Welcome to the 1st 'Rendez-vous de la Musique' Music Festival to be held in the height of summer 2022.

As we passed through the isolated time when it was difficult to meet and interchange due to the COVID-19 outbreak, the idea of this festival came to my mind by asking myself the question of how we can be together through music and interact with each other in music more than ever.

I am pleased to introduce the festival under the theme of "Renaissance of the 20th century" with the hope of sharing 'together' with you the very intimate and special 'musical rendezvous' through chamber music, where close musical ties and communication between performers are essential.

The 20th century was a historic period filled with many events and tragedies. It also marks an important period in music history as the identity of American classical music was established and modern music was developed. Despite these tragic events during this period, music and the art continued to make progress. This constant revival made me reflect on the true meaning of 'Renaissance'. More I delved into the meaning, I found many similarities to the present world.

Through this festival of four performances, I would like to take a moment to reflect on the darkness and light from the past. Ultimately, it is my wish that we find another "Renaissance of the 21st century" in our community and culture.

*Rendezvous: an encounter that happens to everyone's life, whether big or small, accidental or inevitable.*

Just as music found my life, I hope 'Rendez-vous de la Musique' Music Festival will take you to a time during which you can experience a 'musical rendezvous' that transcends time and space in your daily life.

Last but not least, I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est gratitude to all your support and love to make the 'Rendez-vous de la Musique' Music Festival happen. I sincerely hope you join us for many more years to come.

Thank you.

8. 21. 2022

Artistic Director **HyeJin Kim**

**Lili Boulanger**

릴리 불랑제

**3 Pieces for Violin and Piano**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3개의 소품 (9분)

- I. Nocturne
- II. Cortège
- III. D'un Matin de Printemps

Pf. 김혜진

Vn. 송지원

**Nadia Boulanger**

나디아 불랑제

**3 Pieces for Cello and Piano**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3개의 소품 (7분)

- I. Modéré
- II. Sans vitesse et à l'aise
- III. Vite et nerveusement rythmé

Pf. 김혜진

Vc. 요시카 마사다

**Darius Milhaud**

다리우스 미요

**Sonatine for Flute and Piano**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티네 (8분)

- I. Tendre
- II. Souple
- III. Clair

Pf. 일리아 라쉬코프스키

Fl. 조성현

**Igor Stravinsky**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Suite from L'Histoire du Soldat',  
for Violin, Clarinet, and Piano**

바이올린, 클라리넷, 피아노를 위한 '병사 이야기 모음곡' (15분)

Pf. 일리아 라쉬코프스키

Vn. 김재원

Cl. 김상윤

## I N T E R M I S S I O N

**Rebecca Clarke**

레베카 클라크

**2 Pieces for Viola and Cello**

비올라와 첼로를 위한 2개의 소품 (6분)

- I. Lullaby
- II. Grotesque

Va. 임지환

Vc. 요시카 마사다

**George Gershwin**

조지 거슈윈

**'An American in Paris' for Clarinet and Piano**

클라리넷과 피아노 버전의 블루스 '파리의 미국인' (4분)

Pf. 일리아 라쉬코프스키

Cl. 김상윤

**Gabriel Faure**

가브리엘 포레

**Piano Quintet No.2 in c minor Op.115**

피아노 오중주 2번 c단조 Op.115 (30분)

- I. Allegro moderato
- II. Allegro vivo
- III. Andante moderato
- IV. Allegro molto

Pf. 김혜진

Vn. 송지원

Vn. 김재원

Va. 임지환

Vc. 요시카 마사다



예술감독/피아노

김혜진

- 부조니 국제 콩쿠르, 홍콩 국제 피아노 콩쿠르 입상
- 살라스티나 뮤직 소사이어티 상주 피아니스트
- 미국 콜번 학교 교수진, 추계예술대학 국제학부 음악과 조교수



피아노

일리아 라쉬코프스키

- 하마마쓰 국제콩쿠르 1위, 롱티보, 루빈스타인, 퀸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
- 성신여자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바이올린

송지원

-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레오폴드 모차르트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1위
-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관현악과 조교수



바이올린

김재원

- 스위스 취리히 톤할레 오케스트라 부악장 (2019-2021)
- 부산클래식음악제 예술부감독
- 오슬로 필 객원 부악장, 툴루즈 카피톨 국립 오케스트라 악장



비올라

임지환

- 성정음악콩쿠르 1위, 세이지 오자와 마츠모토 페스티벌
- 이든 콰르텟 비올리스트



첼로

요시카 마사다

- 살라스티나 뮤직 소사이어티 상주 첼리스트, 사쿠라 첼로 콰텟 창단 멤버
- 미국 챔버 대학 음악과 교수 및 현악과 학과장



플루트

조성현

-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카라얀 아카데미 단원
- 쾰른 귀르체니히 오케스트라 종신 수석 역임
-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관현악과 조교수



클라리넷

김상윤

- 2015 프라하의 봄 국제콩쿠르 우승
- 세인트 폴 챔버 오케스트라 종신 수석, 미네소타 대학교 조교수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으로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PROGRAM NOTE

**Lili Boulanger 1893-1918**

### 3 Pieces for Violin and Piano

**릴리 불랑제**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3개의 소품**

릴리 불랑제는 음악계의 대 스승인 나디아 불랑제의 여동생이었다. 파리 출신으로 여성 최초로 로마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의 주인공이었으나 25세를 채우지 못한 나이로 요절했다. 릴리의 음악세계는 포레를 잇는 한편 드뷔시로 대표되는 프랑스 인상주의 음악의 성격을 띠고 있다. 아름답고 섬세한 색채감과 감동을 주는 작품을 지향했다. '녹턴'은 제목대로 밤 시간이 영감을 주고 기초가 되어준 작품이다. 도입부의 번뜩이는 피아노 연주에 맞춰 바이올린은 주 멜로디로 들어간다. 드문드문한 피아노의 반주는 풍성한 바이올린에게 표현의 여지를 준다. 정점에서 바이올린이 동요할 때 피아노는 더 크게 연주한다. 두 악기는 점차 얽히다가 고요해진다.

'행렬'(Cortège)'은 가볍고 활기차다. 리듬의 액센트를 변화시키고 다이내믹을 대비시키는 흥미로운 작품이다. '봄날 아침에'는 적은 소재를 유기적으로 살리고 활력이 넘치는 단단한 작곡법을 보여준다.

**Nadia Boulanger 1887-1979**

### 3 Pieces for Cello and Piano

**나디아 불랑제**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3개의 소품**

1915년 프랑스 악보 출판사인 HEUGEL사에서 출간된 나디아 불랑제의 작품이다.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였던 아버지 에르네스트 불랑제는 1835년 스무 살 때 로마 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 6세 연하 동생 릴리 불랑제는 1913년 여성 작곡가 최초로 로마 대상을 수상했다. 나디아 자신도 1906년과 1907년에 두 번의 실패를 거듭하면서 수상

을 영원하게 된다.

1900년 열 세 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불과 이삼년 후에는 파리 음악원의 화성, 푸가, 작곡, 오르간, 피아노 반주에서 일등상을 받았다. 그녀의 재능을 스승인 포레도 인정했고 후원자가 된 피아니스트 라울 푸뇨의 격려로 1908년 다시 로마대상에 응모했지만 결과는 2등이었다.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3개의 소품은 1911~1913년 나디아 불랑제가 작곡해서 1914년에 출간됐다. 제1곡은 옛 어법의 고풍스런(archaïque) 분위기의 피아노 반주에 올라선 첼로가 애타게 부르는 노래다. 제2곡은 부드럽게 달래는 듯한 음악이다. 제3곡은 힘찬 리듬으로 곡의 최후를 장식한다.

**Darius Milhaud 1892-1974**

### Sonatine for Flute and Piano

**다리우스 미요**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티네**

20세기 초 새로 등장한 신고전주의는 바로크와 고전주의 음악에서 영향을 받아 현대 감각에 맞게 발전했다.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양식을 따르는 6인조가 등장하였다. 그 일원인 미요는 신고전주의적 기법을 계승하면서 독특한 음악적 스타일을 추구했다. 페달 포인트(오르간 포인트)와 피아노 반주부에서 음형 반복, 복조와 다조의 기법, 재즈적 기법이 특징이다.

프랑스적 요소와 아방가르드적인 요소를 결합한 그는 20세기 초 프랑스에서 신고전주의 양식을 확립하는데 영향을 끼쳤다.

신고전주의의 음악적 요소가 잘 융합된 이 작품의 1악장에서 다조성이 나타나며, 플루트의 선율적 진행에 비하여 피아노 성부는 집단음과 동형진행의 사용으로 화성적 색채감을 더해준다. 2악장은 재즈적 요소를 들을 수 있다. 플루트의 단순한 선율을 수식하기 위하여 온음계와 반음계의 사용이 반복적이다. 3악장은 악곡 전체의 종지 역할을 하는 코다부분을 포함한다. 플루트 선율에 대한 피아

노의 대선율 음형이 반복된다. 온음계적 단순한 선율과 간결한 형식의 요소들이 신고전주의적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곡에 소나티네라는 명칭이 붙었으나 전통적인 고전주의 소나티네 형식과는 다르다. 당김음에 의한 리듬 패턴은 재즈적 요소와 함께 긴장감을 조성한다. 페달 포인트의 사용은 바로크시대의 음악적 요소이며 반음계적 진행은 20세기 음악의 선율적 특징이다.

**Igor Stravinsky 1882-1971**

### 'Suite from L'Histoire du Soldat', for Violin, Clarinet, and Piano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바이올린, 클라리넷, 피아노를 위한**

**'병사 이야기 모음곡'**

이고르 스트라빈스키의 독특한 작품이다. 음악과 극, 발레와 낭독을 넣어 만든 작품은 스트라빈스키가 36세 때인 1918년 작곡했다. 원래 악기 편성은 클라리넷, 바순, 트럼펫, 트롬본, 바이올린, 더블 베이스, 타악기 등이다. 병사, 악마, 공주, 낭독자가 등장한다. 스트라빈스키가 원시주의에서 신고전주의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작품이다. 스위스의 시인 '라외즈'의 시를 사용했고 1918년 9월 28일 로잔 극장에서 에르네스트 앙세르메가 지휘해서 초연했다. 러시아의 동화에서 소재를 얻은 이 작품의 줄거리는 이렇다. 한 병사가 휴가를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냇가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바이올린을 연주한다. 이때 노인으로 변한 악마가 나타나서 바이올린과 마법의 책을 바꾸자고 한다. 병사는 거절했지만 악마는 강제로 바꾸고 만다. 병사는 이 노인을 따라 악마의 집에서 3일간 지냈는데 사실은 3년간에 해당하는 긴 기간이었다. 병사가 자신의 집에 돌아갔을 때 그의 연인은 다른 사람과 결혼했고 사람들은 그를 상대도 해 주지 않았다. 그러므로 병사는 다시 여행을 계속한다. 어떤 나라의 공주가 중병

을 앓고 있는데 병만 고쳐 준다면 공주와 결혼할 수 있다. 가서 봤더니 악마도 와 있다. 병사는 악마와 트럼프를 해서 이기고 바이올린을 되찾는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니 공주는 병이 완쾌돼서 병사는 공주와 결혼한다. 그러나 악마의 저주 때문에 공주와 함께 국경을 넘어 돌아가지 못하고 악마에게 혼을 빼앗긴다. 악마는 승리를 뽐내면서 행진한다.

스트라빈스키는 전쟁을 피해 스위스로 온 자신이 '병사 이야기'를 공연할 수 있도록 도와준 후원자인 베르너 라인하르트에게 작품을 헌정했다. 스트라빈스키는 아마추어 클라리넷 연주자이기도 했던 라인하르트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병사 이야기' 모음곡을 클라리넷, 바이올린, 피아노를 위한 편성으로 편곡했고 1919년 11월 스위스에서 초연했다.

**Rebecca Clarke 1886-1979**

### 2 Pieces for Viola and Cello

**레베카 클라크**

**비올라와 첼로를 위한 2개의 소품**

레베카 클라크(1886-1979)의 이 작품은 두 개의 대조적인 악장 '자장가'와 '그로테스크'로 구성돼 있다. 작곡가 자신과 영국 첼리스트 메이 머클이 함께 연주하기 위해 작곡했다.

'자장가'는 부드럽게 흔들리는 두 악기의 대화다. 아름다운 소품으로 색채감과 미묘함, 부드러운 움직임이 느껴진다. 최후 네 마디에서 두 연주자의 더블스톱이 등장할 때 튜닝이 잘 맞아야 하는 난점이 있다. '그로테스크'에서는 양손 피치카토, 더블 하모닉스, 숄 폰티첼로(활을 브리지 가까이서 연주) 등 기교들이 전면에 등장한다. 강건하고 씩씩한 자연의 모습이며 모방, 리듬의 교차, 하모닉스를 많이 이용한다. 앙상블 훈련용으로도 좋은 작품이지만 연주자들의 만족감도 크다.

## PROGRAM NOTE

**George Gershwin** 1898-1937

### 'An American in Paris' for Clarinet and Piano

조지 거슈윈

#### 클라리넷과 피아노 버전의 블루스 '파리의 미국인'

'파리의 미국인'은 '랩소디 인 블루'와 더불어 조지 거슈윈의 양대 걸작 관현악곡이다. 파리에서 보낸 시간을 생각하며 작곡했다. 1920년대 파리의 모습과 에너지를 떠오르게 한다. 뉴욕 필하모닉의 주문으로 작곡하였으며, 거슈윈의 뮤지컬 곡들과는 달리 그가 직접 오케스트레이션을 했다. 기존 교향악단의 악기 외로 첼레스타, 색소폰과 자동차 경적이 들어간다. 이 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끈적하고 미국적인 블루스 부분을 이탈리아의 작곡가 미켈레 망가니가 클라리넷과 피아노 연주용으로 편곡했다.

2악장은 열광적인 스케르초에 해당한다. 포레 작품 가운데 가장 참신한 부분으로 꼽힌다. 즉흥곡 5번의 무한한 유희성이나 첼로 소나타 2번이나 피아노 3중주의 마지막 악장에서 느낄 수 있는 후기 작품들의 경향을 볼 수 있다. 3악장은 고귀한 포레 음악의 특징이 드러난다. 피아노와 현의 부드러운 대화가 인상적이다.

4악장은 단조이지만 기쁨이 느껴진다. 생명력과 가벼움, 기쁨을 소박한 형태로 표현한다. 춤곡의 리듬을 유지하는 피아노는 악센트와 속도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두 주제로 구성된 론도 형식에 통일감을 주고 있다.

글 | 류태형 음악칼럼니스트

**Gabriel Faure** 1845-1924

### Piano Quintet No.2 in c minor Op.115

가브리엘 포레

#### 피아노 오중주 2번 c단조 Op.115

프랑스 작곡가 가브리엘 포레(1845~1924)가 1921년 완성해 같은 해 초연한 피아노와 현악 4중주를 위한 작품이다. 심각한 청각장애를 앓았음에도 오랫동안 마음속에 구상해온 것을 펼친 걸작으로, 포레 작품의 집대성, 포레 기악곡의 절정이라고 평가받는다. 모두 4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악장은 간소한 소나타 형식이다.

예전의 작품들보다 더욱 간결하고 긴밀하면서 생기 넘친다. 포레 만년의 내적인 풍요로움과 지성이 잘 드러난다.

CONCERT 2

## 한줄기의 빛 String of Hope

08.23.TUE 7:30PM

**Claude Debussy**

클라우드 드뷔시

### 'Afternoon of a Faun' in arrangement for Clarinet, Flute and Piano

클라리넷, 플루트, 피아노를 위한 '목신의 오후 전주곡' (10분)

Pf. 김혜진

Fl. 조성현

Cl. 김상윤

**Kevin Puts**

케빈 푸츠

### 'Living Frescoes' for Clarinet, Violin, Cello and Piano (25분) \*국내 초연

클라리넷, 바이올린, 첼로 그리고 피아노를 위한 사중주 '리빙 프레스코화'

I. Fire Birth

II. The Path

III. The Deluge

IV. The Voyage

V. First Light

Pf. 김혜진

Vn. 송지원

Vc. 요시카 마사다

Cl. 김상윤

I N T E R M I S S I O N

**Olivier Messiaen**

올리비에 메시앙

### 'Quatuor pour la fin du temps' for Clarinet, Violin, Cello and Piano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피아노를 위한 '시간의 종말' (46분)

I. Liturgie de cristal 수정의 예배

II. Vocalise, pour l'Ange qui annonce la fin du Temps

시간의 종말을 알리는 천사를 위한 보칼리제

III. Abîme des oiseaux 새들의 심연

IV. Intermède 간주곡

V. Louange à l'Éternité de Jésus 예수의 영원성에 대한 찬미가

VI. Danse de la fureur, pour les sept trompettes 일곱대의 트럼펫을 위한 광란의 춤

VII. Fouillis d'arcs-en-ciel, pour l'Ange qui annonce la fin du Temps

시간의 종말을 알리는 천사를 위한 무지개 무리

VIII. Louange à l'Immortalité de Jésus 예수의 불멸성에 대한 찬미가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으로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p>예술감독/피아노 <b>김혜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조니 국제 콩쿠르, 홍콩 국제 피아노 콩쿠르 입상</li> <li>• 살라스티나 뮤직 소사이어티 상주 피아니스트</li> <li>• 미국 콜번 학교 교수진, 추계예술대학 국제학부 음악과 조교수</li> </ul>
	<p>바이올린 <b>송지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레오폴드 모차르트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1위</li> <li>•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관현악과 조교수</li> </ul>
	<p>첼로 <b>요시카 마사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살라스티나 뮤직 소사이어티 상주 첼리스트, 사쿠라 첼로 콰텟 창단 멤버</li> <li>• 미국 챔번 대학 음악과 교수 및 현악과 학과장</li> </ul>
	<p>플루트 <b>조성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카라얀 아카데미 단원</li> <li>• 쾰른 귀르체니히 오케스트라 종신 수석 역임</li> <li>•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관현악과 조교수</li> </ul>
	<p>클라리넷 <b>김상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 프라하의 봄 국제콩쿠르 우승</li> <li>• 세인트 폴 챔버 오케스트라 종신 수석, 미네소타 대학교 조교수</li> </ul>

**Claude Debussy 1862-1918**

**'Afternoon of a Faun' in arrangement for Clarinet, Flute and Piano**

클라우드 드뷔시

**클라리넷, 플루트, 피아노를 위한 '목신의 오후 전주곡'**

나른한 여름날 오후 시칠리아 해변 숲속 그늘에서 즐기고 있던 목신 판은 아련한 꿈 같은 상태에서 나뭇가지 사이로 목욕하는 요정을 발견한다.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지만, 가물거리는 자태에 마음이 끌려 샘가에서 보았던 한 쌍의 요정을 떠올린다. 목신은 마치 어떤 힘에 이끌리는 듯 요정들을 향해 달려가 그대로 품에 안고 장미 넝쿨로 뛰어들고는 헝클어진 머리카락에 입을 맞춘다. 그 때 몽롱한 관능적 희열이 온 몸에 퍼진다. 그러나 환상의 요정은 어디론가 사라진다. 밀려오는 권태를 망연히 바라보며 목신은 에로틱한 몽상을 해보기도 하고 한낮의 작열하는 태양을 향해 입을 벌려 뉘을 잃기도 하고 갈증을 느끼며 모래 위로 쓰러진다. 그리고 목신은 또다시 오후의 고요함과 그윽한 풀냄새 속에서 잠들어버린다.

보들레르를 계승한 상징주의 시인 스테판 말라르메의 '목신의 오후'라는 시의 내용이다. 드뷔시의 곡은 시의 내용을 대체로 따르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 설명이라기보다는 모호하여 포착하기 힘든 환상적이고 관능적인 꿈과 같은 흐릿한 희열을 음으로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다.

주요 주제가 플루트로 연주되는 첫 부분은 계속 오보에와 클라리넷이 발전시켜 나가며 가볍게 하프의 여음이 남겨져 여름날 미풍이 나뭇잎을 스치고 지나가는 느낌을 준다. 다시 플루트와 첼로가 나오면서 호른의 소리에 하프가 조용히 화답하며 여러 환상이 교차되며 정열적인 멜로디가 나온다. 목신의 환상적인 정념의 높이를 반영하듯 관능의 열기가 물결치고 이윽고 곡은 중간부의 클라이맥스에 도달한다. 요정의 달콤하고 몽롱한 관능의 기쁨을 연상케 하는 주제가 목관에 나타난다. 다시 플루트의 선율이 계

속되며, 이 같은 진행으로 마지막 제1주제가 현악기에 재현돼 나른한 기분으로 바뀌고, 하프의 하강음형을 수반한 호른의 화음이 공허함을 절묘하게 표현한 뒤 다시 조용히 사라진다. 잠에 빠져드는 목신을 표현한 것이다.

드뷔시가 작곡한 지 100년 만에 마이클 웹스터가 플루트, 클라리넷, 피아노 버전으로 편곡했다. 작품에 나오는 유명한 플루트 솔로를 리사이틀에서도 들을 수 있도록 플루트와 피아노의 앙상블을 구상했고 클라리넷을 덧붙여 색채를 대비시키면서 음향의 밸런스를 맞췄다. 플루트와 다른 악기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여보자. 클라리넷은 원곡에서 오보에, 잉글리시호른, 프렌치호른, 클라리넷이 연주하는 패시지를 맡는다.

**Kevin Puts 1972-**

**'Living Frescoes' for Clarinet, Violin, Cello and Piano**

케빈 풋츠

**클라리넷, 바이올린, 첼로 그리고 피아노를 위한 사중주 '리빙 프레스코화'**

'리빙 프레스코화(Living Frescoes)'는 빌 비올라의 2002년 설치작품인 '우리는 날마다 나아간다(Going Forth by Day)'에 대한 영감으로 작곡됐다. 파두아 스크로베니 성당에 그려진 조토 디 본도네의 프레스코화에 영향을 받은 비올라의 작품은 고대 이집트 사자의 서(The Book of Going Forth by Day)에서 차용했다. '불의 탄생', '행로', '대홍수', '여정', '최초의 빛' 등 다섯 부분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영상이 투사하는 빛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벽면에 투사되는 영상과 음향의 중심에 선다. 각 다섯 개의 영상은 약 30분 분량으로 연속적으로 재생된다. 이 디지털 프레스코화는 개인, 사회, 죽음, 부활 등 인간 존재론적 주제를 탐구하며 일상과 인생의 순환의 과정을 이야기한다.

케빈 풋츠의 작품은 클라리넷,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가

## PROGRAM NOTE

연주한다. 메시앙 '시간의 종말을 위한 4중주'와 동일한 편성이다. 다섯 개의 악장은 비올라 작품의 다섯 가지 주제를 투사한다. 작곡가는 '나아감(Going Forth)'이라는 희미하고 변화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이들 악장과 뒤섞으며 주제를 소개한다. 무소르그스키 '전람회의 그림'에서 '프롬나드'의 역할이라고 보면 된다.

음악이 비올라의 작품을 그대로 반영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풋츠는 음악 안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찾기도 한다. 가령 비올라의 '행로'를 풋츠는 '인생의 여정'으로 새겼다. 비올라의 의도가 아닐지도 모르지만 음악의 흐름 안에서 떠오르는 주제다. 우리가 미술관에 갔을 때 그림에서 그림으로 옮기면서 나름대로의 생각이 떠오르는 것과 같은 이치다. 풋츠는 비올라의 작품에 갇히지 않고 더 넓은 의식의 캔버스 안에서 음악이 흐르는 대로 내버려두며 작품을 썼다.

이 작품은 체임버 뮤직 몬테레이 베이의 위촉으로 작곡됐으며 2012년 10월 12일 트리오 솔리스트와 클라리넷 주자가 초연했다.

**Olivier Messiaen 1908-1992**

### 'Quatuor pour la fin du temps' for Clarinet, Violin, Cello and Piano

올리비에 메시앙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피아노를 위한  
'시간의 종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포로였던 메시앙은 수용소에서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리넷 주자, 첼리스트를 만났다. 그들을 위해 작곡해 1941년 괴를리츠 수용소의 포로들 5000명 앞에서 초연했다.

8개의 악장으로 이루어졌고 안식의 분위기를 지닌 7악장은 영원처럼 지속된다. 8악장에 이르러 영원한 빛과 불변의 평화로 변한다. 서주인 1악장 '수정의 예배'와 종말을

고하는 천사를 위한 보칼리제인 2악장, 그리고 '시간의 종말을 알리는 천사를 위한 무지개 무리'인 7악장은 주제 면에서 서로 관련을 가진다. 무한 심연을 나타낸 3악장 '새들의 심연'과 시간의 종말을 알리는 6악장 '일곱 대의 트럼펫을 위한 광란의 춤'은 클라리넷의 단일성부로 이루어졌으며 경쾌한 4악장 '간주곡'과 연결된다. 느린 템포의 5악장 '예수의 영원성에 대한 찬양'과 8악장 '예수의 불멸성에 대한 찬양'에서는 피아노가 반주하는 독주 현악기가 두드러진다.

글 | 류태형 음악칼럼니스트

CONCERT 3

## 선구자들 Roads Untraveled

08.24.WED 7:30PM

**Amy Beach**

에이미 비치

**Piano Trio Op.150** \*국내 초연

피아노 삼중주 Op.150 (15분)

- I. Allegro
- II. Lento espressivo
- III. Allegro con brio

**Pf. 일리아 라쉬코프스키**

**Vn. 김재원**

**Vc. 이정현**

**Charles Ives**

찰스 아이브스

**Piano Trio**

피아노 삼중주 (24분)

- I. Moderato
- II. Presto
- III. Moderato con moto

**Pf. 일리아 라쉬코프스키**

**Vn. 김재원**

**Vc. 이정현**

I N T E R M I S S I O N

**Ludwig van Beethoven**

루트비히 판 베토벤

**Piano Trio 'Archduke' Op.97**

피아노 삼중주 '대공' Op.97 (40분)

- I. Allegro moderato
- II. Scherzo: Allegro
- III. Andante cantabile, ma pero con moto
- IV. Allegro moderato

**Pf. 일리아 라쉬코프스키**

**Vn. 김재원**

**Vc. 이정현**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으로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피아노  
**일리아 라쉬코프스키**

- 하마마스 국제콩쿠르 1위, 롱티보, 루빈스타인, 퀴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
- 성신여자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바이올린  
**김재원**

- 스위스 취리히 톨할레 오케스트라 부악장 (2019-2021)
- 부산클래식음악제 예술부감독
- 오슬로 필 객원 부악장, 툴루즈 카피톨 국립 오케스트라 악장



첼로  
**이정현**

- 윤이상 국제 콩쿠르 우승, 퀴엘리자베스 콩쿠르 입상
- 모나 파르티첸 첼리스트 및 솔리스트

**Amy Beach** 1867-1944

**Piano Trio Op.150**

에이미 비치

**피아노 삼중주 Op.150**

미국 최초의 본격적인 여성 작곡가로 손꼽히는 에이미 비치(1867~1944)는 신동이었다. 열 살이 되기 전에 피아노와 작곡을 독학으로 공부했다. 14세 때 보스턴 심포니와 협연해 호평 속에 데뷔했다. 비치는 19세기와 20세기 초 미국과 유럽에 솔로리스트로 이름을 날렸고, 작곡가로서의 명성이 추가됐다.

피아노 3중주 Op.150은 낭만주의와 인상주의의 감성으로 충만한 작품이다. 1악장 도입부의 알레그로는 피아노의 빛나는 패시지로 시작되고 그 위로 첼로가 제1주제를 소개한다. 악기의 표현은 시종일관 풍부하고 장대하다. 몇 군데 멜로디와 화성이 인상주의적으로 변화하면서 예측했던 관계조 진행을 흐릿하게 한다. 음색은 대개 절제를 띠고 전개되다가 단 한 번 두드러진 강조를 표현한다. 2악장 렌토 에스프레시보는 1악장과 비슷한 음색과 분위기로 전개된다. 중간의 프레스토 부분은 사실상 대위법적인 악구로 강렬하다. 이 두 번째 섹션은 스타카토, 관능적이고 권태로운 분위기의 화성이 이끌며 악장 끝까지 향한다. 제2섹션의 주 모티프는 코다에서 한 번 더 나타난다. 3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느 초조하게 느껴지는 배경 위에 차분해진 선율선으로 시작한다. 장대하고 나른한 음색이 주류가 되고 마지막 부분에선 불안한 흥분감과 행복감이 뒤섞인다.

**Charles Ives** 1874-1954

**Piano Trio**

찰스 아이브스

**피아노 삼중주**

찰스 아이브스는 피아노 3중주를 1904년에 거의 다 썼지만 완전한 작곡은 1911년에 끝냈다. 3악장 구성으로 1악장 모데라토, 2악장 TSIAJ(This Scherzo Is a Joke). 프레스토, 3악장 모데라토 콘 모토로 되어 있다. 1898년 작곡가가 졸업한 예일대학 시절을 반영하는 작품이다.

1악장은 세 차례 반복되는 27마디로 이뤄졌다. 처음에 첼로와 피아노, 그리고 바이올린과 피아노, 마지막으로 세 악기가 모두 연주한다. 5분 남짓 진행되며 세 개 악장 중에 가장 짧다. 아이브스는 1악장에 대해 나이 지긋한 예일대 철학과 교수가 학생들에게 한 강의를 연상시킨다고 설명했다.

1악장보다 조금 더 긴 2악장에서는 다조성과 음악적 인용이 정신없이 이어진다. 두 번의 휴지부에서 연주자들은 두터운 폴리포니로 돌아가면서 휴일 오후에 게임과 농담을 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제시한다. 피아노는 잔물결 같이 끝을 맺으며 무뚝뚝한 리듬의 유니즌으로 마지막 화성의 급소를 때린다.

14분 가량 지속되는 가장 긴 3악장은 휩쓸 듯한 서정성으로 2악장의 인용한 선율들의 파스티체와 대조를 이룬다.그럼에도 3악장은 다른 곡조를 인용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곡은 아이브스가 1896년에 예일대 합창단을 위해 쓴(그러나 연주는 거절당한) 노래 'The All-Enduring'이다. 부드럽게 흔들리는 멜로디는 점점 커져 피아노와 현의 당김음으로 이뤄진 가벼운 섹션으로 진행된다. 코다에서 3개의 부분은 마침내 부드럽고 조용해진다. 토머스 헤이스팅스의 'Rock of Ages'를 인용하는 첼로를 피아노가 축축하게 반주한다. 아이브스의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이 3중주는 미국적이고, 독창적이며 쾌활하다.

**Ludwig van Beethoven** 1770-1827

**Piano Trio 'Archduke' Op.97**

루드비히 판 베토벤

**피아노 삼중주 '대공' Op.97**

베토벤이 남긴 7곡의 피아노 3중주 가운데서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실내악곡 중에서 가장 빼어난 작품의 하나인 이 피아노 3중주곡 '대공'은 베토벤이 중기에서 후기로 접어드는 시기인 1811년에 완성되었다.

이 시기는 교향곡에 있어서는 이미 '전원' 교향곡까지, 그리고 협주곡 분야에서는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를 위시한 대부분의 걸작들이 완성되어 있던 시기로 베토벤의 작품 세계가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었을 때다. 따라서 비록 실내악이지만 '대공' 트리오는 웅대한 규모를 지니며, 세대의 악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협주적 색채도 뛰어나다. 특히 전곡을 통하여 치밀하게 진행되는 피아노의 연주를 중심으로 한 찬란한 실내악의 진수가 이 작품에 완전히 결집되어 있다. 동시에 매우 풍부한 선율과 화성의 아름다움, 원숙한 정서, 고귀한 품위가 아울러 갖추어져 있다. 한편 작품 저변에는 베토벤 시대 특유의 부드럽고 섬세한 마음의 움직임이 흐르고 있는데 이점도 매력의 한 요소를 차지한다. 이 곡은 루돌프 대공에게 헌정되어 '대공'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대공은 이 3중주곡에 깊이 감동하였다고 전해진다. 작품의 초연은 1814년 4월 11일, 베토벤이 직접 피아노를 연주하여 이루어졌다.

1853년 합스부르크가 출신의 프리드리히 3세가 루돌프의 특권을 소급해 인정하고 그의 아들 막시밀리안과 그 상속자들에게 오스트리아 대공이라는 칭호를 부여함에 따라 '대공'이라는 칭호는 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다. '대공'은 합스부르크 가문의 모든 남자와 그 부인, 딸들을 지칭할 때 사용됐다.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는 여유롭고 기품 있는 피아노

가 밝은 울림으로 주제를 노래하고 첼로가 화답하며 바이올린과 함께 화려하고 우아하게 연주한다. 2악장 스케르초 알레그로에서는 바이올린과 첼로가 경쾌하게 연주하고 피아노가 이를 반복한다. 3악장 안단테 칸타빌레에서는 피아노가 서정적인 선율을 연주한다. 바이올린과 첼로에 의해 네 개의 변주로 접어들며 더욱 깊은 서정성을 노출한다. 4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는 화려하고 넉넉한 악상을 전개하는 밝고 빠른 론도 형식이다.

글 | 류태형 음악칼럼니스트

**Samuel Barber**

사무엘 바버

**Adagio for Strings in Original String Quartet**

현을 위한 아다지오 현악 사중주 (10분)

- I. Molto allegro e appassionato
- II. Molto adagio
- III. Molto allegro

Vn. 김재원

Vn. 송지원

Va. 임지환

Vc. 이정현

**Anton Dvořák**

안톤 드보르자크

**Quartet in F Major Op.96 'American'  
(Quartet arranged for Flute, Violin, Viola and Cello)**

플루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를 위한 '아메리칸' (24분)

- I. Allegro ma non troppo
- II. Lento
- III. Molto vivace
- IV. Vivace ma non troppo

Vn. 김재원

Va. 이서현

Vc. 요시카 마사다

Fl. 조성현

I N T E R M I S S I O N

**Robert Schumann**

로베르트 슈만

**Märchenbilder Op.113**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그림 동화 소품들 Op.113 (15분)

- I. Nicht schnell
- II. Lebhaft
- III. Rasch
- IV. Langsam, mit melancholischem Ausdruck

Pf. 김혜진

Va. 이서현

**Texu Kim**

김택수

**'Sunset in Depoe Bay' for Flute, Viola and Piano \*국내 초연**

플루트, 비올라, 피아노를 위한 '디포 베이의 일몰' (5분)

\* Special thanks to composer's courtesy.

Pf. 김혜진

Va. 이서현

Fl. 조성현

**Aaron Copland**

아론 코플랜드

**Sextet for Clarinet, String quartet and Piano**

클라리넷, 피아노, 현악 사중주를 위한 육중주 (15분)

- I. Allegro vivace
- II. Lento
- III. Finale. Precise and rhythmic

Pf. 김혜진

Vn. 송지원

Vn. 김재원

Va. 임지환

Vc. 이정현

Cl. 김상윤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으로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술감독/피아노

**김혜진**

- 부조니 국제 콩쿠르, 홍콩 국제 피아노 콩쿠르 입상
- 살라스티나 뮤직 소사이어티 상주 피아니스트
- 미국 콜번 학교 교수진, 추계예술대학 국제학부 음악과 조교수



바이올린

**송지원**

-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레오폴드 모차르트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1위
-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관현악과 조교수



바이올린

**김재원**

- 스위스 취리히 톤할레 오케스트라 부악장 (2019-2021)
- 부산클래식음악제 예술부감독
- 오슬로 필 객원 부악장, 톨루즈 카피톨 국립 오케스트라 악장



비올라

**이서현**

- 뮌헨 바이에른 국립 오페라 극장 아카데미
- 도이치 오퍼 베를린 오케스트라 종신 단원



비올라

**임지환**

- 성성음악콩쿠르 1위, 세이지 오자와 마츠모토 페스티벌
- 이든 콰르텟 비올리스트



첼로

**요시카 마사다**

- 살라스티나 뮤직 소사이어티 상주 첼리스트, 사쿠라 첼로 콰르텟 창단 멤버
- 미국 챔맨 대학 음악과 교수 및 현악과 학과장



첼로

**이정현**

- 윤이상 국제 콩쿠르 우승, 퀸엘리자베스 콩쿠르 입상
- 모나 콰르텟 첼리스트 및 솔리스트



플루트

**조성현**

-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카라얀 아카데미 단원
- 쾰른 귀르체니히 오케스트라 종신 수석 역임
-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관현악과 조교수



클라리넷

**김상윤**

- 2015 프라하의 봄 국제콩쿠르 우승
- 세인트 폴 챔버 오케스트라 종신 수석, 미네소타 대학교 조교수

## PROGRAM NOTE

**Samuel Barber** 1910-1981

### Adagio for Strings in Original String Quartet

사무엘 바버  
현을 위한 아다지오 현악 사중주

영화 '플래툰'에 삽입돼 널리 알려진 명곡이다. 미국 작곡가 사무엘 바버의 이 곡은 원래 현악 4중주 1번 B단조의 느린 악장이었다. 바버가 27세 때인 1936년 작곡한 뒤 아다지오를 오케스트라용으로 편곡해서 1938년 토스카니니가 지휘한 NBC교향악단의 연주로 초연했다. 서정적인 분위기가 농후하고, 명상적인 멜로디가 대위법적으로 전개되어 가는 간결한 구성이다. 그리 심각하지는 않지만 절제된 가운데 비극적인 정서는 어느 곡보다도 강하게 풍긴다.

토스카니니는 남미와 유럽에 이 곡들을 연이어 소개했고, 유진 오먼디와 함께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를 지휘해서 방송과 실연으로 연주를 남겼다. 그 뒤 오르간 독주, 클라리넷 합주, 목관악기 밴드 등 다양한 악기들의 연주용으로 편곡됐다.

명사들을 추모한 작품으로도 유명하다. 루즈벨트 대통령과 케네디 대통령의 서거를 방송하는 화면에 이 곡이 흘러고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장례식, 모나코 그레이스 켈리 왕비의 장례식에서는 실제로 이 곡이 연주됐다.

**Anton Dvořák** 1841-1904

### Quartet in F Major Op.96 'American' (Quartet arranged for Flute, Violin, Viola and Cello)

안톤 드보르자크

#### 플루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를 위한 '아메리칸'

드보르자크가 작곡한 F장조의 현악 4중주 12번 Op.96은 '아메리칸'(아메리카)라는 별명이 붙어있다. 작곡가의 모

든 실내악곡 가운데 최고의 인기를 자랑한다. 1893년 여름에 작곡했다. 아이오와에 있는 체코 이민자들의 작은 마을 스피필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었다. '신세계' 미국과 중부유럽의 소리를 명인의 숨씨로 블렌딩했다. 1악장은 스피필의 정겨운 숲과 강을 상쾌하게 묘사했다. 2악장을 듣고 있으면 미국에 이민 온 이방인의 우울함, 갈망이나 동경이 떠오른다. 여기에 향수병을 앓아온 작곡가의 마음이 공명한다. 영적이라고 할 수 있는 3악장은 미국 새들이 지저귀는 노래를 모방하고 있고 4악장에서는 철도나 기차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다. 드보르자크의 모든 4중주 가운데서도 비올라 파트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비올라 주자가 뛰어날수록 전체 연주가 좋아진다. 현악 4중주의 원곡을 플루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연주 버전으로 편곡한 스테판 콘취는 제1바이올린의 역할을 플루트에게 부여했다. 플루트와 현악의 결합을 통해 더욱 다양한 음색의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Robert Schumann** 1810-1856

### Märchenbilder Op.113

로베르트 슈만

####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그림 동화소품들 Op.113

슈만이 1851년 3월 쓴 곡으로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작품이다. 슈만은 이 곡을 독일의 비올리스트이자 지휘자 빌헬름 요제프 폰 바질레프스키에게 헌정했다. 20여년 전의 초기 피아노 소품들인 '아베코 변주곡' Op.1이나 '나비' Op.2와 흡사한 분위기로 환상의 세계가 아른거린다. 1악장 '빠르지 않게'는 부드럽지만 어두운 선율을 표현한다. 2악장 '생동감 있게'는 비올라와 피아노가 서로에게 각 인시킴 경쟁 속에서 발랄한 주제는 두 개의 부주제와 대비된다. 3악장 '재빨리'에서는 날렵하게 움직이는 비올라와 탄청 피우는 듯한 피아노가 대조된다. 4악장 '느리게, 우울한 표현으로'는 낭랑한 장조이나 멜랑콜릭한 연주를 요구하여 아이러니컬하다. 브람스 피아노 소나타의 아다

지오 악장과 흡사하다. 1악장과 2악장은 '라푸젤'을, 3악장은 '롬펠슈틸츠헨'을, 4악장은 '잠자는 미녀'를 각각 묘사하고 있다.

**Texu Kim** 1973-

### 'Sunset in Depoe Bay' for Flute, Viola and Piano

김택수

#### 플루트, 비올라, 피아노를 위한 '디포 베이의 일몰'



오리건 해안의 일몰은 마법 같다. 아름다울 뿐 아니라 다양한 기억, 상념, 감정을 떠올리게 한다. 2017년 여름 디포 베이에서 지켜본 일몰의 5분간 단상이다. 5분 동안 나는 바다 너머 고향을 떠올렸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다는 처음 봤을 때부터 내가 살던 곳을 벗어나 세상 밖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은 동경을 상징했다. 그때 난 스러져가는 것들을 생각했다. 증발하는 물, 불타는 찻더미, 초신성들, 그리고 다시 일몰, 우리가 날마다 직면한 죽음. 멋진 제목이 될 테지만 다악장 모음곡에 더 어울릴 듯했다. 그래서 내가 지켜보던 것에 대한 소품을 작곡하기로 했다.

디포 베이의 일몰.

바닷가의 소리로 시작한 곡은 천천히 하강음형으로 이행한다. 해가 지듯이. 마지막 한 조각 햇빛도 사라진다. 그렇게 음악도 끝이 난다. 별다른 감정이나 표현을 덧붙이지 않고 시각적 이미지를 그대로 음악으로 바꿔보려 했다.

청중이 내가 봤던 것을 듣고 그들의 방식대로 반응할 수 있도록. (글 | 김택수 작곡가)

**Aaron Copland** 1900-1990

### Sextet for Clarinet, String quartet and Piano

아론 코플랜드

#### 클라리넷, 피아노, 현악 사중주를 위한 육중주

코플랜드는 1933년 교향곡 2번 '짧은 교향곡(Short Symphony)'를 작곡했다. 다조성과 음렬주의와 달아있는 추상적인 화성언어를 사용한 곡이었다. 기저에는 끓어오르는 멕시코인의 생동감이 놓여있었다. 코플랜드는 '짧은 교향곡'을 자신이 작곡한 곡들 가운데 최고 중 하나이지만 "버려진 자식 같다"고 했다. 세르주 쿠세비츠키와 레오폴드 스토코프스키는 작품의 리듬이 너무 복잡해 연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연주를 취소했다. 쿠세비츠키는 코플랜드에게 "아니, 연주가 너무 어려운 게 아냐. 불가능하다고" 라고 말했다 한다. 결국 '짧은 교향곡'은 1934년 11월 멕시코 작곡가 카를로스 차베스가 지휘하는 멕시코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초연했다. 초연 전까지 열 번의 리허설을 거쳤다. 1944년 스토코프스키가 NBC심포니를 지휘해 이 곡을 연주하자 뉴욕타임스의 평론가는 '복잡한 불협화음의 미로'라고 평했다. 코플랜드는 '짧은 교향곡'의 악보를 다시 손봐서 클라리넷, 피아노, 현악 4중주를 위한 6중주곡으로 발표했다.

교향곡 원곡대로 3악장 구성이지만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2악장 렌토 3악장 피날레, '정밀하고 리드미컬하게' 등 악상기호는 조금 달라졌다. 코플랜드는 악기 수를 줄여 편곡하면서 연주 가능성을 더 높였다. 6중주가 되자 연주자와 감상자 모두 교향곡에 비해 이해하기 수월해졌다. 이 6중주는 특히 연주자들에게 사랑받는다. 코플랜드 작품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작품 중 하나로 꼽히고 한다. 한 작품의 진가는 뒤늦게 평가받곤 한다. "인내심을 배워야 한다"는 코플랜드의 말대로다.

글 | 류태형 음악칼럼니스트

랑데뷰 드 라 무지크 페스티벌 예술감독·피아니스트

## 김혜진 HYEJIN KIM

Artistic Director & Pianist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근거로 활동 중인 피아니스트 김혜진은 독주자, 실내악 연주자, 레코딩 아티스트 그리고 교육자로서 한국 음악계를 세계에 알리며 다양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우리 시대 주목할 만한 연주자 중 한 명이다. 그녀는 2005년 이탈리아 부조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당시 만 17세로 최연소 3위에 입상하며 국제무대에 이름을 알렸다.

일찍이 국내에서 음연 콩쿠르, 이화경향, 한국일보, 쇼팽 콩쿠르, 대구 방송 콩쿠르 등을 석권하며 두각을 나타낸 그녀는 만 17세 나이에 도독하여 부조니 콩쿠르를 포함한 그 외 다수 콩쿠르(홍콩 국제 피아노 콩쿠르, Steinway & Sons 국제 콩쿠르, 칸투 콘체르토 국제 콩쿠르, 네덜란드 영 피아니스트 국제 콩쿠르, 토론토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 및 입상한 바 있으며, 또한 외국인을 위한 장학금재단인 DAAD(독일 학술 교류처) 장학생으로 선발되며 세계무대에 입지를 굳혀 나갔다. 베를린 콘체르트 하우스, 프랑크푸르트 방송 교향악단, 경기 필하모닉 등 국내외 유수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고, Eliahu Inbal, Andreas Orozco-Estrada, JoAnn Falletta, 최수열, 김대진, 성시연 등의 지휘자들과 함께 호흡을 맞췄다. 2013년 아르메니안 필하모닉, Edaurd Topchjan 과 협연한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1번과 2번으로 소니 레이블로 (Sony Classical) 첫 음반을 발매하였다. 또한, 2021년 11월 그래미 최고의 앨범 후보로 오른 프로듀서인 Philip Traugott과 함께 협연한 첫 솔로 음반이 발매되었고, 2월 Naxos 레이블과 작업한 M.Clementi의 초기 소나타들로 구성된 음반이 발매되었다.

5살에 피아노를 시작한 그녀는 예원학교를 거쳐 서울예고를 재학하던 중 도독하여 Fabio Bidini 교수 가르침 아래 독일 한스 아이슬러 국립 음대에서 최고 연주자 과정을 최고점으로 취득하였다. 그 후 미국으로 이주하여 콜번 스쿨에서 아티스트 디플로마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그녀는 미국의 저명한 피아노 교육자였던 고)Bruce Sutherland가 설립한 Amron-Sutherland Fund Grant의 수혜자이다. 현재 그녀는 살라스티나 뮤직 소사이어티 상주 피아니스트로 활동 중이며, 미국 콜번 학교 교수진 및 추계 예술대학 국제학부 음악과 조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 일리아 라쉬코프스키 Ilya Rashkovskiy 피아노 Piano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쉬코프스키는 하마마쓰 국제 피아노 콩쿠르 1위, 롱티보 크레스팽 콩쿠르 2위, 아서 루빈스타인 국제 피아노 마스터 콩쿠르 3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4위 등 세계 유수의 콩쿠르를 석권한 후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장 촉망되는 차세대 피아니스트 중 한 명으로 테크닉과 풍부한 감성표현으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세계를 주 무대로 인정받고 있다. 8세에 이르쿠츠크 실내악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며 데뷔한 그는 키예프 국립필하모닉, 굴벤키안 심포니, 우크라이나 국립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체코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도쿄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 다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다. 또한 그는 낙소스 레이블을 통해 차이코프스키의 사계와 피아노 소나타 앨범을, 알파와 오메가 홍콩 레이블을 통해 모차르트, 쇼팽, 스크리아빈의 피아노 환상곡 앨범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다.



## 송지원 Ji Won Song 바이올린 Violin

바이올리니스트 송지원은 2017 윤이상 국제 음악 콩쿠르 1위 및 박성용영재특별상 수상을 비롯하여 2016 레오폴드 모차르트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1위 및 청중상, 2014 중국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1위 및 특별상, 2014 엘리스 앤 엘레노어 쉰펠드 국제 현악 콩쿠르 1위 및 최고연주상, 2012 샤프트 현악 콩쿠르 1위 및 청중상 등을 수상하였다. 또한 티보 바가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2위 수상을 비롯하여, 칼 닐슨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예후디 메뉴인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하는 등 국제 무대에서 돋보이는 성적을 거두었다. 한예중 예비학교, 클리블랜드 음악원 예비학교를 거쳐 커티스 음악원, 뉴잉글랜드 음악원 석사과정, 줄리아드 음악원 아티스트 디플로마 과정을 졸업했으며, 현재 세계적인 악기사 Tarisio Trust를 통해 "ex-Curtis" Nicolas Lupot, Paris 1799를 후원자에게 지원받아 연주하고 있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관현악과 조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 김재원 Jaewon Kim 바이올린 Violin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원은 만16세에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영재 입학하여 학사 졸업 후, 파리국립고등음악원(CNSMDP) 석사 수석입학 및 최고연주자과정(DAI) 졸업과 동시에 파보예르비가 상임지휘자인 스위스 '취리히 톤할레 오케스트라'의 최연소 부악장으로 선발되어 활동 (2019-2021) 하였고, 2022년 7월 프랑스 '툴루즈 카피 국립 오케스트라'의 악장으로 선발되었다. 만 14세에 금호영재콘서트로 데뷔하였으며, 이태리 Lipizer, 독일 클로스터 쉰탈, 홍콩 쉰펠드, 오스트리아 브람스, 불가리아 소피아 비르투오조 국제콩쿠르 입상 및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2022년 8월 오슬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 객원 부악장으로 초대받아 오슬로 콘서트홀과 런던 BBC Proms에서 연주하였고,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파리 국립오페라하우스 아카데미 단원 역임, 프랑스 릴 국립 오케스트라 객원 부악장을 역임하였고, 2017 프랑스 뱅크 파플레어 재단 아티스트로 2년간 후원 받았으며, 현재 부산클래식 음악제 예술부감독으로 활동 중이다.



**이서현 Seohyun Lee** 비올라 Viola

비올리스트 이서현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원 제1기로 선발,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 입학 및 졸업하였고, 금호영재콘서트를 통해 데뷔했다. 음악춘추콩쿠르, 바로크 콩쿠르, 스트라드 콩쿠르, 세계일보 콩쿠르, 예원음악콩쿠르 등 국내 콩쿠르를 모두 우승하고, 일본 오사카 국제콩쿠르, 미국 서밋 뮤직 페스티벌 협주곡 콩쿠르 주니어 부문에서 입상했다. 독일 뮌헨 음대에서 석사과정을 졸업 후, 현재 베를린 국립음대 기악독주 과정에 재학 중이다. 금호아시아 솔로이스츠 연주회, 금호영재 20주년 기념 콘서트, 영아티스트포럼엔페스티벌 '현악본색' 등 크고 작은 무대를 통해 인지도를 쌓았으며 2017년 독일 청년오케스트라 단원을 시작으로 독일 쾰른 방송교향악단 Praktikum 단원을 거쳐, 뮌헨 심포니커 객원단원, 2019년까지 뮌헨의 명문 오케스트라 바이에른 슈타츠오퍼의 아카데미 단원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9월, 도이체 오퍼 베를린 오케스트라 정단원으로 활동하였으며 2022년 2월부터 종신단원으로 활약 중이다.



**임지환 Jihwan Lim** 비올라 Viola

15세에 취미로 비올라를 시작하여 1년 후인 16세가 되던 해에 비올리스트의 꿈을 꾸기 시작한 임지환은, 바로 그다음 해에 한국예술영재교육원에 입학, 후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에 성적우수자로 입학하였으며 현재는 쾰른 국립음악대학에서 Peijun Xu를 사사로 석사과정에 재학중이다. 음악교육신문콩쿠르, 바로크음악콩쿠르, 음악저널콩쿠르, 성정음악콩쿠르 1위 등 다수의 콩쿠르에 입상하며 두각을 나타낸 그는, 2018년까지 "세이지 오자와 뮤직 아카데미 오페라 프로젝트 XIV", "오자와 인터네셔널 챔버 뮤직 아카데미", "세이지 오자와 마츠모토 페스티벌" 등 세이지 오자와 뮤직 아카데미 단원으로 아시아권의 우수 연주자들과 함께하였으며, 특히 실내악에 큰 의미를 두고 이든 콰르텟 멤버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정현 Christine J. Lee** 첼로 Cello

2002년 10세에 커蒂斯 음악원에 최연소 합격하며 2005년 크리스토프 에센바흐 지휘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와 데뷔한 첼리스트 이정현은 2018년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 우승자로서, 예술의전당, 금호아트홀, 영산아트홀, 호암아트홀, KBS홀 등에서 여러 차례 연주하였고, 서울시향 및 KBS교향악단과 협연하였다. 2016년 플로브디프 콩쿠르, 비보 콩쿠르, 리스트-개리슨 콩쿠르에서 1위를 하였고, 아이마호그콩쿠르, 칠레 루이스 시갈 콩쿠르 2위, 2017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도 입상하였다. 켈거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브뤼셀 필하모닉,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다. 2021년 데뷔 앨범 <Voyage> 출시 및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현대음악을 한국 청중들에게 알리는 등 클래식 음악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줄리어드 음대에서 전액 장학생으로 조엘 크로즈닉과 석사과정을 마치고 벨기에 퀸 엘리자베스 뮤직 샵펠에서 상주 음악가 프로그램으로 게리 호프만을 사사하였다. 현재 모나 콰르텟 첼리스트 및 솔리스트로서 활약하고 있다.



**요시카 마사다 Yoshika Masuda** 첼로 Cello

첼리스트 요시카 마사다는 YAMAHA Music Foundation of Europe String Award를 비롯한 호주, 일본, 미국의 다수 국내 및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솔리스트이자 실내악 연주자로 주목을 받아왔다. 시드니 음악원을 거쳐 영국왕립음악대학교(RNCM)에서 최고 성적으로 졸업한 후 미국 USC Thornton 음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그는 사쿠라 첼로 5중주단의 공동 창립자이며 살라스티나 뮤직 소사이어티의 상주 첼리스트로서 세계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 루턴 대학의 첼로과 조교수이자 현악과 학과장, 몬테시토 국제 음악 축제와 옐로 반 영 아티스트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여름 음악 축제에서 초청 교수진으로 후학을 양성하고 있으며 2022년 가을 학기부터 미국 서부 챔맨 대학 음악과의 새로운 첼로 조교수이자 현악과 학과장으로 활약할 예정이다.



**조성현 Sunghyun Cho** 플루트 Flute

독일 쾰른 귀르체니히 오케스트라(예술감독: 프랑수아-자비에 로트)의 종신 수석 플루티스트를 역임하고 연세대학교 음악대학의 조교수로 임명되어 화제를 낳은 조성현은 세베리노 가첼로니 국제 콩쿠르 우승 및 프라하의 봄 준우승 등 일찍이 세계 유수의 콩쿠르를 석권했으며 그가 속한 목관 오중주 바이츠 쿤텐은 갈 날스 국제 실내악 콩쿠르에서 준우승을 하며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이후 카리안 아카데미를 통해 베를린 필하모닉의 단원으로서 사이먼 래틀, 주빈 메타, 리카르도 샤이, 안드리스 넬슨스, 엠마누엘 파후드, 안드레아스 블라우 등과 작업했다. 현재, 세계적 연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고인홍프로젝트에서 오케스트라 디렉터로 활약하고 있으며 평창페스티벌오케스트라의 플루트 수석 및 금호아시아나솔로이스츠의 멤버, 일본 산쿄(Sankyō) 플루트 아티스트, 플루트아트센터(FAC)의 예술감독으로도 활동 중이다. 2022년에는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클래식 음악 레이블인 데카 레이블을 통해 피아니스트 손열음과 작업한 첫 솔로앨범을 발매하여 국내외 평단의 호평을 받고 있다.



**김상윤 Sang Yoon Kim** 클라리넷 Clarinet

클라리네티스트 김상윤은 2015년 프라하의 봄 국제 콩쿠르 우승자로 일찍이 UNISA 국제 콩쿠르 우승, 자크 랑슬로 국제 클라리넷 콩쿠르 우승 등 다수의 국제 콩쿠르를 통해 국제 무대에 이름을 알렸다. 세인트폴 체임버 오케스트라의 수석 활동 6개월 만에 종신수석으로 임명받으며 북미에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2022년 미네소타 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되어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사카리 오라모 지휘로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했고 이외에도 브뤼셀 필하모니, 도이치 캄머 오케스터 베를린, 오베른 심포니, 성남시향, 울산시향, 광주시향, 프라임필 등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유럽, 한국 등지에서 협연을 하였다. 또한 미국 말보로 페스티벌, 라비니아 페스티벌, 맨체스터 챔버뮤직 페스티벌, 스타방거 국제 실내악 페스티벌 등에서 초청공연을 가졌으며 마틴 프로스트, 장이브 티보데, 로버트 레빈, 에벤느 콰르텟, 캘리도어 스트링 콰르텟과 같은 정상급 아티스트들과 호흡을 맞췄다. 파리국립고등 음악원에 입학한 첫 한국인 클라리네티스트로 이후 미국 콜번 스쿨에서 전문연주자 과정을 마쳤으며, 현재 부페 크람프, 실버스틴, 반도렌 아티스트이자 클럽 M 멤버로도 활동 중이다.

예술감독·피아니스트 김혜진

# ‘랑데뷰 드 라 무지크 페스티벌’ 첫 개최

‘20세기의 르네상스’를 말하며 현시대에 위로를 전하는 페스티벌의 의미

광활한 우주에서 두 비행 물체가 도킹(docking)하려면, 속력을 맞춰야 한다. 지구의 물리 에너지 적용방식과는 달라, 우주에서 궤도를 맞춰 나란히 비행하는 것은 난도가 높은 기술이다. 이를 ‘랑데뷰’ 비행이라 부른다.

음악은 거대한 우주와도 일면 닮아있다. “무한함, 신비로움, 대체 불가능한 아름다움, 그리고 이것이 가져다주는 상상력과 판타지를 가졌다”는 것이 페스티벌을 기획한 김혜진의 설명이다. 올해 예술의전당 인촌아트홀에서 처음 개최하는 이 페스티벌은 이처럼 무한한 음악 세계에서의 운명적인 만남을 계획하고 있다. 랑데뷰를 이루기에 충분한 실력을 갖춘 아티스트들 덕분에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갖춘 실내악 비행 준비가 수월하게 진행 중이다. 피아니스트이자 예술감독으로 페스티벌에 함께 하는 김혜진과 페스티벌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페스티벌 이름에 담고자 했던 의미가 궁금합니다.**

지역하자면 ‘음악적 만남’ 정도가 될 겁니다. 세계 음악과의 랑데뷰(만남)는 우연히 어린 시절에 시작되었죠.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이 시간이 연주자들, 그리고 관객에게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음악적 랑데뷰를 경험하는 것이 되길 바랍니다.

**국내에 크고 작은 실내악 축제가 이미 열리고 있습니다. 랑데뷰 드 라 무지크 페스티벌(이하 랑데뷰 페스티벌)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참신하면서도 균형을 갖춘 프로그램과 젊은 국내의 아티스트들의 상상력, 그리고 편안하고 친밀한 우리 페스티벌만의 분위기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물론 국내에 다양하고 풍성한 축제들이 활약하고 있죠. 음악감독을 맡아보니, 지속적 운용에 많은 분의 노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축제가 늘어나는 것은 대중이 클래식 음악에 접근할 통로를 넓혀, 문화·사회적으로도 이로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페스티벌을 실내악으로만 꾸린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내악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Cherish) 연주 형태 중 하나입니다. 악기 특성상 홀로 연습하는 시간이 많아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었죠. 실내악 연주 기회는 늘 마다하지 않았었고, 그렇게 실내악 앙상블 ‘살라스티나 뮤직 소사이어티’의 상주 피아니스트로

인연을 시작해 5년째 함께 하고 있습니다. 미국 L.A.를 기반으로 한 이 단체는 바이올리니스트 마이아 재스퍼 화이트와 케빈 쿠마가 창단해 올해로 12회를 맞았습니다. 특히 이 단체가 실험적이면서도 현 시대에 걸맞게 음악을 소개하고자 도전하는 방식들은 세계 큰 영감을 줍니다. 마이아와 케빈이 겪은 크고 작은 시행착오를 가까이에서 듣고 접하며, 다방면으로 깊이 숙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아우르며 확산을 꿈꾸다**

**올해의 주제는 ‘20세기 르네상스’입니다. ‘20세기’는 현대 음악으로 발전하는 음악사적 시기이고, ‘르네상스’는 중세 암흑기를 거쳐 문화적 혁명이 일어난 시기를 지칭하는 뜻인데요, 서로 다른 시대를 지칭하는 이 단어가 하나의 주제로 묶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20세기가 전쟁과 경제 공황 등 비극이 많았던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이 어두운 시기에도 예술의 끈을 놓지 않고 발전시켜온 작곡가들의 ‘20세기 르네상스’를 탐구하려는 시도죠. 코로나 확산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 비극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난 세기 작곡가들의 위대함을 현재에도 적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르네상스는 ‘다시’를 의미하는 ‘re’, ‘탄생’을 의미하는 ‘naissance’가 결합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과거, 현재, 다가올 미래에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현상이죠. 우리 사회의 ‘르네상스’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릴리 불랑제, 나디아 불랑제, 레케바 클라크, 에이미 비치 등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을 살았던 여성 작곡가들의 작품도 눈에 띕니다. 여성 작곡가들의 작품에 주목하는 일이 연주자에게 단순히 레퍼토리를 확장하는 이상의 의미를 주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작품을 선정한 것에 특별한 의도는 없었지만, 시대적 동향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여성 작곡가 작품이 연주되는 일이 많아지며 자연스럽게 호기심이 생기게 되니까요. 물론 우리에게 익숙한 작품은 대부분 남성 작곡가들 것이죠. 아직 알려지지 않은 작곡가 중에는 여성도 있겠지만, 여전히 남성도 있겠죠. 즉, 시대적 제약으로 인해 여성 작곡가들의 활동이 국한되었다는 것은 분명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의미를 확장해 성별을 떠나 보석 같은 레퍼토리를 발굴하는 것이 연주자의 사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케빈 풋츠, 김택수의 작품은 현존 작곡가들의 곡이며, 동시에 국내 초연입니다.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작곡가들과 소통하는 방**



김혜진(1987~) 한스 아이슬러 현대에서 최고연주자과정, 클빈 현대에서 아티스트 디플로마 과정을 마쳤다. 부소니 콩쿠르 3위에 입상했으며, 현재 콜빈 현대 교수, 오펜지카 운티 예술 예비학교 피아노과 감독으로 후학을 양성 중이다.

**식이 있는지요.**

현재까지는 악보를 꼼꼼히 살펴보며, 작곡가의 다른 작품들을 많이 들으며 전반적으로 탐구하고 있습니다. 빈 풋츠의 작품은 참조할 만한 원인이 없어, 도움이 될 만한 자료와 피드백을 요청해놓은 상태죠. 작곡가 김택수와는 이번 페스티벌을 준비하며 인연이 닿았습니다. 먼저 연주자들이 충분히 연구를 거쳐 교류한 후에 작곡가와 소통할 예정입니다.

**페스티벌의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관객에게 어떤 페스티벌로 각인되길 바라시는지요.**

청중이 즐길 수 있는 연주를 기획하고 만들어내는 것은 아티스트로서, 예술감독으로서 해내야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지속하며 획기적이면서도 친근한 주제, 다양한 편성으로 개최하는 것이 목표이자 희망인데요, 장기적으로는 해외에서도 랑데뷰 페스티벌의 이름으로 공연을 올리고 싶은 포부도 있습니다. ‘뜻이 있는데 길이 있다’는 말처럼, 열정으로 시작한 페스티벌의 첫 도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네요. 글 허서헌 기자 사진 스테이지원

ABOUT CONCERT PROGRAMMING

랑데뷰 드 라 무지크 페스티벌 | 예술의전당 인촌아트홀

**오프닝 콘서트 ‘파리의 미국인’ 8.21**

릴리 불랑제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3개의 소품, 나디아 불랑제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3개의 소품, 다리우스 미요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티네, 스트라빈스키 ‘병사 이야기 모음곡’(바이올린-클라리넷-피아노 3중주), 레베카 클라크 비올라와 첼로를 위한 2개의 소품, 거슈윈 ‘파리의 미국인’(클라리넷-피아노), 포레 피아노 5중주 2번  
“‘파리의 미국인’은 거슈윈의 작곡명이기도 하고, 당시 파리와 인연이 있었던 작곡가들의 곡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르네상스의 문화적 성지가 피렌체였다면,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예술가들에게는 파리가 문화적 동경의 도시였지 않을까요. 예술에 대한 꿈을 가지고 파리에 모인 미국 예술인들의 모습이 많은 연주자, 그리고 꿈을 향해 달려가는 이들에게 공감이 될 주제라고 생각했어요.”

**한줄기의 빛 8.23**

드뷔시 ‘목신의 오후 전주곡’(클라리넷-플루트-피아노 3중주), 케빈 풋츠 ‘살아있는 프레스코화(Living Fresco)’, 메시앙 ‘시간의 종말을 위한 4중주’  
“페스티벌의 메인 공연 중 하나며, 메시앙의 시간의 종말을 위한 4중주를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시간 너머에 존재하는 영원한 무언가를 표현한 초월적이고 영적인 작품이라, 무대에 올리고 싶은 작품 중 하나입니다. 케빈 풋츠의 ‘살아있는 프레스코화’는 빌 비올라의 설치 작품 ‘Going Forth by Day’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메시앙 작품과 동일한 앙상블 구성의 작품이며, 이 두 심오한 두 작품의 앞을 ‘목신의 오후 전주곡’의 새로운 편성으로 성스럽게 시작하려 합니다.”

**선구자들 8.24**

에이미 비치 피아노 3중주 Op.150, 찰스 아이비스 피아노 3중주, 베토벤 피아노 3중주 ‘대공’  
“제목 그대로 미국 클래식 음악 확립에 공로를 세운 찰스 아이비스, 미국 여성 작곡가 선구자로서 에이미 비치, 굳이 다른 말이 필요 없는 혁신적 작곡가 베토벤의 작품으로 구성했습니다.”

**여름날의 환상 8.25**

바버 현을 위한 아다지오(현악 4중주), 드보르자크 플루트-바이올린-비올라-첼로를 위한 4중주 ‘아메리칸’, 슈만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그림 동화 소품들 Op.113, 김택수 ‘디포베이의 일몰’(플루트-비올라-피아노 3중주), 코플란드 클라리넷-피아노-현악 4중주를 위한 6중주  
“여름이라는 계절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입니다. 계절이 주는 낭만과 환상, 그리고 경쟁함 등이 담겨있습니다. 한여름 광활한 자연, 혹은 애절한 사랑의 낭만, 혹은 햇살 아래의 에너지를 느끼면서 여행을 떠나는 듯한 공연이 되길 바랍니다. 드보르자크의 ‘아메리칸’은 베를린 필의 플루트 수석 에마누엘 파위의 편곡 버전입니다. 현악 4중주로 익숙한 이 작품을 새로운 편성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월간 <객석> 7월 호 글 허서헌 기자



STEINWAY & SONS

# SPIRIO

세계 유명 피아니스트들의 연주를  
우리 집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신개념 피아노

Steinway.kr 에서 직접 확인해보십시오.



RHAPSODY IN BLUE  ECSTATIC IN PINK

언제나 집안에서 즐길 수 있는 명품 콘서트 - 스타인웨이 스피리오.

iPAD와 연동하여 스타인웨이 피아노의 연주를 무료로 얼마든지 재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캐피탈 36개월 할부 가능

(주)코스모스악기  
스타인웨이 갤러리 서울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5 TEL (02)3486-0447  
자세한 정보는 STEINWAY.KR 을 방문하세요.

  
STEINWAY & SONS

열정적이며 탁월한 테크닉, 색채가 풍부한 해석을 겸비한 연주자  
*C. Riechau, Der Westen*

세계 3대 국제 콩쿠르 “부조니 피아노 콩쿠르”, 당시 최연소 3위 수상!  
피아니스트 김혜진 첫 솔로 음반



*HYEJIN KIM*  
**MIROIRS**

MAURICE RAVEL  
ENRIQUE GRANADOS  
GEORGE GERSHWIN

오프라인 구입처 **예전레코드**  
(예술의전당 음악당 내)

온라인 구입처

  
amazon.com

  
naxosdirect.com

  
qobuz.com

진정한 연기는  
그 사람의 마음이 되어 보는 것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음이 되어 봐야  
당신께 진심으로 힘이 될 수 있으니까

**현대해상도 당신의  
마음이 되어 봅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